

삼성디스플레이, 휴대폰용 모듈 베트남으로

2020년까지 10억달러 투입 ... 삼성전자 휴대폰용 모듈 생산라인 건설

삼성디스플레이(대표 박동건)는 베트남 북부에 10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최근 하노이를 방문해 응웬 땀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를 예방해 투자 의사를 밝히고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베트남 북부 박닝성의 삼성전자 제1 휴대폰공장 잔여부지에 휴대폰용 모듈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생산된 패널에 회로를 붙이는 등 후공정 작업을 진행한다. 생산된 디스플레이 부품은 삼성전자 휴대폰에 전량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박닝성 옌퐁공단에 생산능력 1억2000만대의 세계 최대 휴대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이옌 성에도 생산능력 1억2000만대의 제2공장을 완공해 시험 생산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대상 부지와 투자 규모 등 세부계획을 담은 투자제안서를 기획투자부(MPI)와 산업 무역부 등 베트남 관계 부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최근 글로벌기업 유치에 박차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투자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에게 적용하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삼성디스플레이에게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기술 보유기업으로 인정되면 처음 4년 동안은 법인세가 전면 면제되고 이후 9년 동안은 50% 감면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18>